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 사업
- 회의일시 : 2017. 7. 14(금) 13: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의실

2017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 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10개 단체가 지원 신청했다. 신규 신청은 8개 단체였고, 지난해 선정된 2개 단체도 재신청하였다. 1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공연 콘텐츠로 해당 시군의 추천이 필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10개 사업이 접수된 것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업이 지속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브랜드 공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하게 한다.

#### (평가사업)

총 1개 단체(전년도 평가 사업 수행단체)가 지원 신청하여 1개 단체를 선정했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행업무가 가능하고, 평가지표 체계가 비교적 타당하며, 평가 운영 계획과 평가결과의 종합분석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여부를 보고 판단했다.

#### (공모사업)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공모 심의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성 반영 수준, 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과 함께, 해당 지역 전문가의 참여 수준,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여 심의했다. 신규 사업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100% 반영하였고, 기존 사업은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 80%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20%를 더해 반영했다.

심의위원 일동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기준에 따른 개별사업 신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역브랜드 사업의 이전 성과와 금년도 개선방안 등의 사업계획을 파악하였다. 이후 전체 지원신청단체에 대한 종합심의회의를 거쳐 개별심의위원의 채점과 점수 합산에 의한 지원사업 선정, 선정공연의 예산배정의 결과를 도출했다.

전통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융복합 예술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했으나, ‘전통예술’ 혹은 ‘융복합 예술’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지역 특성화된 전통예술을 브랜드화한 단체가 많지 않았다.

지역을 대표할 브랜드 공연으로서의 빈약한 콘텐츠(작품 소재/형태(장르)/지역적 특성 미흡),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 신청, 총사업규모 대비 자부담 비율 미달,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지역적 특성 및 예술성, 발전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의하면서도 한정된 사업예산에 따른 지역별 안배도 함께 고심했다. 또한 지역이 보유한 전통과 환경자원을 잘 활용하거나, 재미있는 소재로 공연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신청사업을 선정하였다. 다만, 현 시점에서 완성도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타 장르와 어설픈 융화가 될 우려도 있는 부분은,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잘 다듬어 간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보았다.

위와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심의위원들은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 평가를 통해 지원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심의위원 일동은 2017년 지역브랜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우수한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역 문화예술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 확장되어 감이 매우 고무적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상설공연까지 이르기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음악, 안무, 연출, 연희의 전문가가 부족하여 공연의 완성도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히 대중과의 친밀도가 낮은 전통예술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부분은 장기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로드맵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지역브랜드 공모 사업으로 보다 빨리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각 도시가 자신의 지역에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좋은 취지에 걸맞은 지역브랜드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성도 높은 공연을 지역에서 즐길 수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가 발전되고 전승되어 간다면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한 모든 도시가 문화가 살아있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지원이 결정된 사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서 다음해에도 지속사업으로 평가되길 기대한다.

2017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 사업 심의위원 일동